

영가 법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오늘 이 장엄한 천도의 법석에 오셔서 무량한 열반락을 누리길 손모아 바라옵니다.

생사의 길은 어두워 부처님의 광명에 의지해야 밝힐 수 있고, 고해의 파도는 험난하여 법보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생육도의 중생은 진리에 미혹하여 제자리를 맴돌고, 삼도팔난의 생명은 미망에 매달려 자신의 허물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생사의 윤회는 오늘에 이르도록 그칠 줄 모르니,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왕생극락을 발원하고자 법석을 마련하고 불보살님을 청하오니, 본래의 서원 잊지 마시고 이 도량에 강림하시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앞길을 밝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생각 어둡지 않고 팔식(八識)이 분명하여 부처님의 품안에서 풍성한 공덕을 누리고, 묵은 업장과 지난 빛을 모두 소멸하여 정각보리를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초록이 짙어가는 이 푸른 계절에 후손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입니다. 이 나라의 눈부신 번영과 국민의 안락한 삶은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이 나라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후손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이 법석에 오셔서 진리의 향기를 마음껏 향음하시고, 하루 빨리 중음(中陰)의 세계에서 벗어나 불보살님의 따뜻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태어났다 하여도 난 바 없고, 죽었다 하여도 멸한 바 없으니, 삶과 죽음이 본래 비어 있는 것임을 알면 진리의 세계에 항상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바의 인연을 놓고 명부에 가시니 나와 남이 어디 있고,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고단한 싸움과 갈등으로 얽힌 이승의 인연을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열반언덕으로 가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좋은 국토, 밝은 인연 만나시어 원수 맺고 빛진 이들 모두 고통 벗어나서 무량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령들이시여!

지금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딛고 빛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기와 시련 또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불굴의 의지로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후손들에게 맡기시고 불보살의 품에서 편히 쉬기를 모두가 합장하여 기원합니다.

불기 2558년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